

책 한 권이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는데

도서출판 동화기술 정우용사장의 남다른 고향사랑

충북 황간 시골마을에 조그마한 공부방이 생겼다. 그곳에 책이 보내졌다. 책을 보낸 사람의 정성에 보답이라도 하듯 아이들이 차츰 변했고, 동네 공부방은 독서실로 바뀌어졌다. 잘 갖추어진 독서실에 선생님이 찾아왔고, 독서실은 또 하나의 학교로 변했다. 사고뭉치 아이들은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버리고 책과 함께 학교로 돌아왔다. 고향 후배들을 위한 조그마한 실천이 충북 황간을 변하게 하고 있다.

변화의 중심엔 도서출판 동화기술의 정우용사장(56세)이 있었다. 정씨가 고향인 충북 황간에 10년 넘게 책을 보내는 이유는 '한 권의 책이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라는 평범한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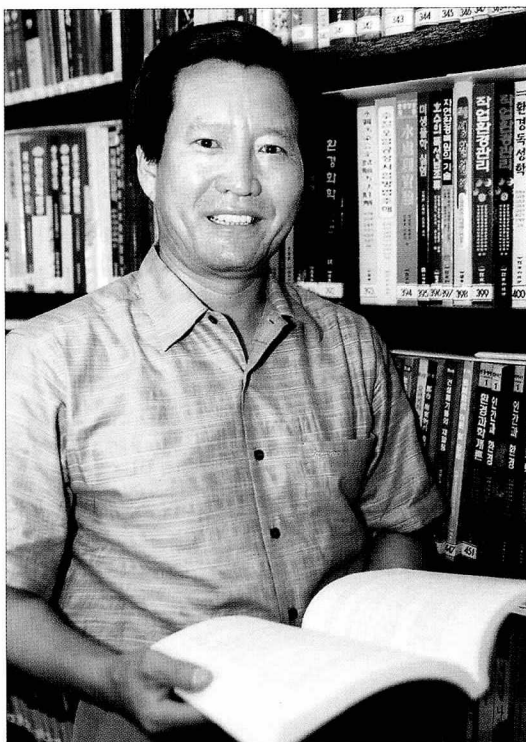
“아버님이 마을 훈장 선생님이었어요. 늘상 책 보기를 좋아하셨고 혼자 보시기엔 아깝다며 동네 아이들을 불러 책을 읽게 하시곤 하셨지요.”

1977년부터 도서출판 동화기술을 설립하면서 출판업에 뛰어난 정씨가 고향에 책을 보내기 시작한 것은 1990년부터이다.

“고향 사람이 찾아 왔어요. 아이들이 빛나가고 있다고 말이죠. 그 아이들이 황간의 미래, 나라의 미래인데 책을 보여줌으로서 빛나간 아이들을 바로 잡아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시절 기억 때문인지 언젠가 찾아온 고향 사람의 책을 보내달란 부탁을 그는 흔쾌히 수락했다. 즉각적인 변화는 아니었지만 책이 갖추어진 도서관이 생겨나면서 자전거와 오토바이로 밤을 보내던 아이들이 하나둘 공부방으로 몰려들었다. 이런 아이들의 변화에 선생님들도 자원봉사자로 동참했다. 퇴근 후 쉬는 시간을 쪼개가면서 아이들이 있는 도서관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아이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을 선생님이 아닌 동네 형, 누나들처럼 조목조목 가르쳐 주기 시작한 것이다. 고향에 보내는 책들은 정씨가 직접 엄선한 것들이다. 도서관의 주 고객(?)이 학생인 점을 감안해 각종 수험서가 보내지고, 여기에 위인전기, 교양도서 등이 추가된다.


“누구나 다 그랬지만 어렸을 때 형편이 어려워 책을 읽고 싶어도 책이 없어서 못 읽곤 했지요. 요즘처럼 많은 책을 기증하는 분들에 비하면 양은 보잘 것 없지만 아픈 과거를 떠올리며 고향후배들을 위해 앞으로도 힘닿는 대로 책을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정씨의 이 같은 노력 덕분인지 황간면 도서관은 지난 92년 '전국 최우수 새마을 도서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고향 외에도 다양한 곳에 책이 보내진다. 주로 서울시립대, 계명대, 연세대, 영동대 외에 중국의 연변과학기술대 도서관까지 책을 보내는 정씨의 손길이 미친다. 정씨가 대학 도서관에 책을 보내는 이유는 출판사의 주 고객이 대학과 대학원생이기 때문이다.

“크지 않은 회사이지만 우리 출판사를 이해해주는 사람들 때문에 출판사가 운영되는 것 아니겠어요. 학생들과 사회에 큰 빛을 지고 있는 셈이지요. 그 빛을 갚는 건 빛진 자의 의무로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서울시립대 총동창회 부회장직과 함께 기성회장직도 맡고 있는 정씨는 아직도 책을 살 돈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98년부터 소규모 장학사업도 벌이고 있다. 지금 벌이는 장학사업은 액수가 크진 않지만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별도의 장학재단을 만드는 근간이 될 것이다. 사회사업 못지 않게 출판사업에도 소홀함이 없다. 각종 수험, 기술, 과학 관련 서적을 출판하고 있는 두 개의 출판사(도서출판 동화기술, 신광문화사)에서 발간된 책들은 98년(과학적 연구의 기법)부터 99년(국제환경법론 등 총5권), 2000년(대기오염개론 등 총3권), 2001년(최신환경공학 등 총4권)까지 4년 연속 우수학술 도서로 선정된 바 있고, 95년, 97년 2000년에는 한국과학기술도서상 출판부분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런 공적이 인정받아 정씨는 올 4월 20일 제 35회 과학의 날 '과학기술진흥유공자 국무총리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용우 기자
(photoyw@print.or.kr)

인쇄용지상식	
<p>인쇄시 지분이 발생하는 원인</p> <p>지분 발생은 용지 표면에 지분이 많았을 경우와, 용지 재단면에 재단으로 인한 종이가루가 많았을 경우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용지 표면에 나타나는 지분은 인쇄시에 블랭킷을 공회전 시키면 지분을 제거할 수 있으며, 재단면에서 발생하는 지분은 다시 재단하여 인쇄를 실시하면 인쇄물에 지분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p> <p>롤지 인쇄시 기포현상 발생원인은</p> <p>롤지는 운전기로 인쇄를 할 때 매엽기와는 달리 건조기를 이용해서 단시간에 건조를 한다. 따라서 용지는 고온에서 블리스터링이 발생하지 않게 제조한 운전용(web offset)지를 구입하여야 하며, 인쇄를 하는 과정에서 심하게 기포현상이 발생한다면 건조기의 온도를 낮추어서 작업하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p>	<p>다. 참고로 운전용에 사용하는 web offset지는 종이 가 급격하게 건조되면서 종이 내부가 파괴되지 않게 종이의 내부 결합강도를 강하게 하였으며, 종이 건조될 때 빨리 건조되게 종이 내부의 수분도 일반적인 종이보다는 작게 제조된다.</p> <p>인쇄시 핀트(PINT)가 맞지 않을 때</p> <p>인쇄시 정확한 색 조합을 위해서는 핀트를 맞추어 인쇄를 해야한다. 핀트를 맞추는 과정에서 종이 신축 현상이 발생하면 판에 용지가 맞지 않아 의도했던 색이 나오지 않게 된다. 또한 종이를 인쇄할 때 처음부터 컬링(바가지 현상)이 심하거나, WAVE(종이가 파도처럼 가운데 부분이 휘는 현상)가 발생하면 정확하게 핀이 맞지 않았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용지를 숙성시켜 용지의 표면이 안정적으로 변화된 후 인쇄를 실시하면 방지할 수 있다.</p>